

복약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

- 중증 케톤혈증, 당뇨병성 수면 혹은 전 수면의 환자
- 중증 감염증, 수술전후, 중증외상환자
- 이 약의 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 탄수화물 소화효소제제(디아스타제 등)를 투여중인 환자.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

-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앓은 경험이 있는 환자
- 이 약 또는 그 외 다른 약, 음식, 염료, 보존제에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경우
- 임부나 가임부
- 수유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지시 받았다면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 외과적인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에게 이 약의 복용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저혈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탕 등의 포도당원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발생한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하는 부작용

- 실신, 지각의 상실
- 갈증, 구갈, 피로감
- 흉조, 피부의 건조감 · 소변의 횡수 증가
- 식욕감소 · 호흡의 곤란
- 호흡의 곤란 · 맥박의 이상
- 떨림, 어지러움, 시야의 혼탁, 두통
- 입의 마비감
- 무력감, 창백, 갑작스런 배고픔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해야 할 음식과 약물이 있습니까?

- 다른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합니다.
- 다른 당뇨병약, 디곡신, 이뇨제, 에스트로겐, INAH, 고혈압약, 피임약 등을 투여하는 경우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처방성 약이 아니라도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을 경우 의사 또는 약사 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커피 또는 술을 자주 마실 경우, 담배를 피울 경우에도 이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열, 습기,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이 약은 흡습성이 강하므로 특히 습기에 주의합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당뇨병과 구강관리

근간에 들어 성인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인병은 질병 양태가 만성적이며 특히 몇몇 질환은 치과질환과도 관련이 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중 당뇨병은 그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구강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고 특히 치과치료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당뇨병으로 인한 구강변화와 구강관리 및 치과치료 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자.

만은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는 구강의 변화가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당뇨를 발견하기 전이나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라도 이미 구강내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치석침착이 잘되고, 깊은 치주낭(치아와 잇몸사이에 존재하는 공간)도 잘 형성되어 혈당치가 상승할수록 치주질환이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구강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구강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구강작열감(입안이 마르고 화끈거리는 증상)이나 입냄새가 야기될 수 있고 잇몸에도 영향을 주어 치아의 동요도가 심해지고 저작시 치통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당뇨병성 치주질환은 항상 일정 상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심한 염증, 다발성 치주농양(고름 주머니), 깊이 형성된 치주낭 등의 주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불량한 구강위생 상태에 따른 심한 치태침착, 치석형성, 치조골 흡수 등이 나타나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 외의 증상으로는 구강 궤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구강이 건조해 지므로 쉽게 음식물이나 칫솔질과 같은 자극에 상처가 나기 쉬우며 일단 상처가 나면 당뇨병으로 인해 구강점막이나 치주조직의 치유가 지연이 되기 때문이다.

충치의 발생

특히 당을 조절하지 않는, 즉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이 많이 증가한다. 물론 이는 구강건조증이 나타날 경우 타액 유출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치아나 잇몸을 청소하는 타액의 청소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혈당의 변화가 타액과 치은열구액(치아와 잇몸사이에 존재하는 체액)에도 영향을 미쳐서 구강내 세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타액의 성분 중 전분효소 작용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치아우식증이 호발하게 된다.

이러한 구강내의 당도의 증가와 치아우식의 증가, 치주질환의 진행, 구강건조증의 증상은 구강내, 특히 혀에 곰팡이가 잘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여 구강진균증을 유발하